지역 메아리

김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지난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김제시 읍면동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지역의 대표성 있는 표본가구를 선정 후, 해당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주민의 건강 행태와 건강 관련 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등을 조사해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200여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계측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제시의 경우 선정된 534가구에 대해 선정통지서 및 홍보자료를 조사하기 전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본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그동안 교육을 수료한 보건소 소속 조사원으로 붉은색의 유니폼에 김제시보건소장 직인이 날인된 신분증을 착용하고 있다.

선정된 조사 가구를 직접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하는데, 수집된 모든 정보는 건강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니 "정확한 조사결과를 위해 선정된 대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특산물 종합정보 플랫폼 활성화

완주군이 농특산물 종합정보 플랫폼에 해당 농특산물 및 가공품 게시를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 받는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특산물 종합정보 플랫폼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완주군 대표 홈페이지와 개인, 업체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완주군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알리고, 개인 및 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홈페이지, 블로그 등과의 연동을 통해 구매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쇼핑몰,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 중 완주군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개인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완주군은 로컬푸드직매장 외에 12개 단체 40여개 품목을 게재해 운영해 오고 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은 "온라인쇼핑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농특산물 종합정보 서비스를 통한 판매 영역의 다각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은 21일 운주면사무소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완주 화산~운주도로시설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완주군 도로개선사업 본궤도

화산~운주 구간 시설개량 주민설명회 열어 의견 수렴 실시설계 세부내용 반영

완주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도 17호선 화산~운주(말골재) 구간의 시설개량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21일 완주군은 운주면사무소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완주 화산~운주도로시설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는 인근 운주, 경천면 주민들을 비롯해 관계기관에서 150여명이 참석해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국도 17호선 화산~운주(말골재) 구간은 노폭협소와 선형불량으로 사고 위험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대둔산 도립공원 관광차량과 주민들의 통행이 많아 선형개선이 시급한 구간이었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 2014년 9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상사업에 시설개량으로 건의하고 수시로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 결과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확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올해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총 연장 약 3.1km 구간에 대한 설계를 추진 중이다.

완주군은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세부내용에 반영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군수는 "사업구간은 불량한 도로선형과 급커브로 인해 운주면 주민들은 물론 대둔산을 찾는 차량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였다"며 "이번 시설개량사업으로 도로구조와 선형을 개선해 주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발로 뛰는 현장행정 '바쁘다 바빠'

김제 요촌동 송해숙 동장 관내 27개 경로당 방문

김제시 요촌동 송해숙 동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속에 취약계층 밀착 현장행정 추진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송해숙 동장은 지난 9일부터 관내 27개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 폭염대책 홍보용 부채와 쿨스카프를 배부하면서 폭염 건강관리 요령을 설명하는 한편 냉방시설 일제점검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해 수리 대책을 마련했으며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직접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섬김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을 현장행정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47개 전 마을에 대해 1일 9~10개소 영농현장을 찾아가 인삼, 논콩, 과수 등 폭염피해 조사와 함께 한발대비 농업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를 위로 격려하는 등 폭염대책 현장 활동으로 분주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송동장이 부임한 이래 요촌동이 활기가 넘친다. 특히, 동장이 마을에 직접 찾아와 따뜻한 격려와 함께 주민들을 세심하게 살펴주니 너무 고맙다"고 입을 모았다.

송해숙 동장은 "밤낮없이 지속되는 폭염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요촌동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사망자 5명 발생

김제보건소, 예방사업 강화 휴대용 기피제 무상 제공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진드기 매개감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의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북에서 사망자가 5명 발생해서, 우리 김제시의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예방수칙을 제작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이장단회의, 부녀회의, 보건지소, 진료소 및 유관기관등의 협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휴대용 기피제를 무상으로 1인 1개씩 제공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긴급대응 방안으로 모기 진드기 퇴치제품인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시내 6개 지역에 설치했다. 인위적 작동을 통해 사람이 꼭 필요한 곳에 기피제를 뿌리게 하는 기기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모악산 및 금산사에 2대, 시민운동장에 2대, 벽골제에 2대를 설치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사용방법은 분사기에 있는 작동버튼을 누르고 왼편 분사기의 손잡이를 당겨 팔과 다리, 착용한 옷 위에 10초간 뿌리는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은 관심과 주의로 예방할 수 있는데,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과 오심(속이 메스꺼워 구토를 할 것 같은 느낌), 기침, 구토, 설사, 식욕부진등 소화기 증상이며, 피로감, 근육통, 오한을 동반한다.

예방법으로는 진드기 접촉 피하고 밝은 색 긴 옷 착용, 돗자리, 기피제를 사용하며, 접촉 진드기를 제거하고 귀가 즉시 세탁 및 목욕을 하며,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조기진단 적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 인근 농경지(논, 밭), 산(숲), 공원등 야외활동(등산, 여행 등) 시, 임산물 채취, 농작업 등 풀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나 노인성 질환환자 등은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진드기 물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불합리한 규제 연내 정비 속도낸다

김제, 개혁 추진상황 점검 회의 조례 15건 개정상황 등 논의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전대식 부시장 주재로 '2018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8개부서 9개업무 담당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법제처가 배포한 '2017조례개선사례 50선' 가운데, 김제시에 해당하는 조례 15건에 대한 개정상황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15건의 조례를 연말까지 상위법과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계획을 꼼꼼히 확인했다.

법제처의 '2017조례개선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김제시는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연내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대식 부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관련부서 협업으로 과감히 정비하는 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